



## 관심만이 아닌, 행함이 동반되어야 할 때

유 흥 업 (하늘다리 호스피스 팀장)

늘 마음으로만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졌을 뿐, 선뜻 나서지 못하다가 한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한 의료인으로서 경험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는 터라 별 두려운 없이 시작했습니다만 교육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임을 깨닫고 호스피스교육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스피스 봉사는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참 이웃 사랑이기에, 그리고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동안 호스피스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많은 말기환자들이 호스피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이 안타까웠는데 호스피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면서 점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음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많은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지만 이전 관심만이 아닌 행함이 동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우와 그 가족들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우나 그 가족 스스로가 호스피스를 찾아 올 수 있을 만큼 호스피스가 불편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편화된 호스피스 프로그램 중 가장 편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다리 호스피스는 가정이나 병원으로 환우들을 방문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들의 아픔을 나누기에 너무도 부족한 것들이 많기에 종종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우 곁을 떠나오곤 합니다.

환우들은 호스피스=죽음이라는 등식으로 호스피스 봉사자를 거부하는가 하면 옆 병상의 일반 환우를 시샘하며 우울해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환우들의 마음이 닫혀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평안을 누리야 할 임종단계에 있는 환우에게까지 끝없이 행해지는 의료 행위는 호스피스 전문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또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서서히 지쳐 가는 환우와 가족간의 갈등, 특히 열악한 가정형편 때문에 혼자서 그 큰 고통을 감내 해야만 하는 환우의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환우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어서 말기 환우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이해타산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들이 모여지지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있어야 할 곳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환자의 가정으로, 또한 병원에 산재형으로 입원해 있는 말기 환우들을 방문하고 있기에 여기에 더해서 호스피스 시설에 해당하는 「하늘다리 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꾸며 기도했던 환우들의 편안한 안식처 「하늘다리 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11일에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 치루었던 제1회 「마르지 음악회」로 머릿돌을 삼고 「일일 찻집」으로 그 건립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우리 하늘다리 호스피스와 함께 천국에서도 축하하며 소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2004년 새해를 바라보며 이런 소망의 잔치가 같은 마음을 가진 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길 기대해 봅니다.